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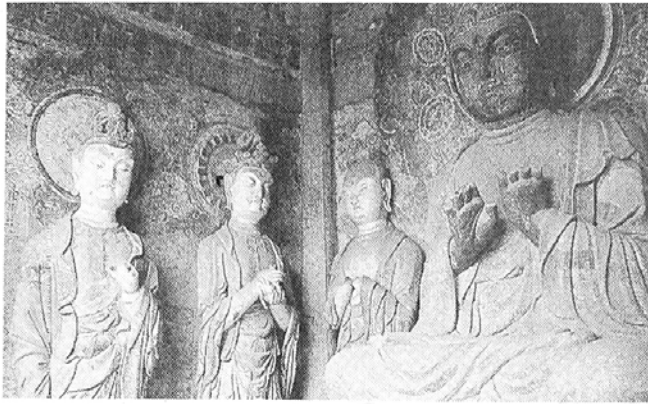
중국 불교석굴 “책으로 답사”

운강 용문 등 중국의 대표적인 석굴을 비롯해 이제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중국 18개 성(省) 140여 곳의 석굴과 마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석굴 연구에 새 지평을 연 저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 책은 아직 초보적인 연구 단계에 있는 국내 석굴 연구자들에게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불교석굴은 3세기부터 16세기까지 1천3백여년에 걸쳐 조성되어, 불교사

(彫武)석굴, 남쪽에 있는 의산 백룡동(白龍洞)석굴과 내몽고 백안고(百眼窩) 등 상당수 석굴은 전문가들조차 잘 모르는 석굴들이다.

저자는 가능한 많은 내용을 수록한다는 이같은 입장에서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참조, 실제답사를 통한 확인작업으로 내용에 충실을 기했다.



◇ 중국 감숙성 천수(天水) 맥적산(麥積山)석굴 4호굴 제7감 정벽 및 우벽의 불좌상, 제자상, 보살상.

‘중국석굴 연대표’, ‘중국불교 조각사 연구논저 목록’도 눈길을 끈다. 특히 원자에 없는 주제·시대·인물별 ‘논저목록’은 중국 불교조각 연구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 홍익대 김리나교수(미술사학과)는 이 책에 대해 “중국 석굴조각과 깊은 관계가 있는 한국의 불교미술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본 입문서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김재경 기자

화보·해설 수록 1300년 중국조각 흐름 ‘한눈에’ 철저한 고증통해 정리... 불교미술사 이해 ‘도움’

조상을 망라한 본격적인 중국 석굴 연구서가 용인대 배진달 교수에 의해 번역됐다.

중국 용문석굴연구소 온옥성(溫玉成)교수가 중국석굴에 담긴 불교사상과 조각미·문화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중국석굴과 문화예술>(中國石窟與文化藝術)(경인문화사 刊) 상(하설)·하권(도판)은 그간 국내에 화보집 형태로 소개된 중국석굴을 학술적인 상세한 해설을 곁들여 소개하고 있어 불교미술사 이해에 큰 도움을 줄

회화 조각 건축 복식 등 모든 분야에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그간 중·소형 석굴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한 책자가 출간되지 않아 대규모 석굴군과의 연계성 및 대형 석굴군과의 연계성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에서 나와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다. 중국의 가장 서북쪽에 있는 최성 대서구(大西溝)석굴, 서남쪽에 있는 장파 창룡(昌龍)석굴, 동북쪽에 있는 창무

또한 석굴사원을 지역별, 시대별로 정리해 불교조각의 내용과 의미, 역사적 배경 등을 풍부하게 담았다. 30여년간의 연구경험을 쌓은 불교고고학자인 저자가 철저한 고증을 통해 석굴의 조형적인 면은 물론, 다양한 석굴예술에 반영되어 있는 종교 사상 예술 및 민속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

이밖에 원자의 도판과 함께 배진달교수가 보완한 4백33점의 생생한 컬러 도판과 부록인

“한자한자 원뜻 살리려 노력”

“아비달마승정리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연구가 없으면 서 깊히 번역에 손을 대어 부끄럽지만 한자한자에 담긴 뜻을 전하려고 노력했어요. 눈앞은 분들의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최근 <아비달마승정리론(順正理論)>(동국역경원 刊)을 국내 최초로 번역한 운문승가대학장 명성스님(운문사 주지·66)은 “까다롭고 어려운 논서의 번역을 맡아 책임이 무겁

‘아비달마승정리론’ 첫 번역 명성스님

다”고 말한다. 전 80권 2만5천송(頌), 80만언(言)으로 구성된 방대한 <승정리론>의 20권 분량을 1차로 번역, 한글대장경 제178권으로 펴낸 스님은 올해 안에 22권을 더 번역해 출간할 예정이다. <승정리론>은 <아비달마구사론(俱舍論)>의 학설을 반박한 것으로 복인도 가습미라국 중현(家賢)이 지었고 당 고종 영

휘 5년(654)에 현장이 번역했다. 불멸 후 9백년 경 건타라국에 출생,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에 출가한 세친(世親)이 <아비달마구사론>의 깊은 뜻을 요달하고 <아비달마구사론>을 지은데 대해 증언사가 <구사박론(俱舍論)> 2만5천송을 지어 구사론을 반박한 것이 바로 <승정리론>이다. 명성스님은 동국대대학원 불



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선암사, 서울 청룡사, 청도 운문사 강원의 강사를 거쳐 운문승가대학장을 맡으며 강의와 역경, 사찰 경영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재>

출판 소식

설일체유부 계율서 3권 번역

부파불교의 일파인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계율을 엮을 수 있는 <근본설일체유부(根本說一切有部律)>와 <근본설일체유부(根本說一切有部律)>의 3권이 한글대장경 제187권, 189권, 190권으로 동국역경원(원

장 월운)에서 번역 출간됐다. <근본설일체유부(根本說一切有部律)>는 비구니들이 출가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범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근본설일체유부(根本說一切有部律)>는 부처님이 계율을 설하게 된 인연과 한 일을 설명하고 있다.

80권 화엄변상도 ‘CD 한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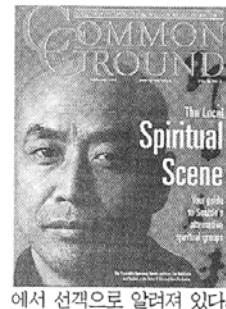
도서출판 열린불교(대표 이영근)는 최근 고려대장경에 수록된 80권본 <대방광불화엄경>의 변상도(전 80장)를 1장의 CD에 담아 보급하기로 했다.

열린불교는 이 CD를 자체 디자인 자료로 활용키 위해 개발했으나 모든 디자인 업체나 출판사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10만원에 보급하고 있다. (02)739-0108

육조사 주지 현승스님

美 명상집지 표지모델

美 캘리포니아 육조사(미국, 버클리)주지 현승스님이 명상 전문잡지 <Common Ground of Puget Sound> 96년 2월호에 표지모델로 실려 화제가 되고 있다. 현승스님은 지난 4년간 버클리대를 중심으로한 참선지도 등 포교활동으로 미국사회



에서 선적으로 알려져 있다.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편자	출판사
1	달을 듣는 강물	김진태	해냄
2	기도	일타	효림
3	능엄경 주해	운허	동국역경원
4	금강경 강의	무비	불광
5	연선도인	백운	우리출판사
6	무비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공부	무비	민족사
7	업보	혜범	밀알
8	그 마음을 바쳐라	김재웅	용화
9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일타	효림
10	만화로 보는 불교이야기	김영민·최영호	고려미디어

구입문의: (02)737-0695

명사추천

불교학개론 강의실 J301

불교학개론 강의실 J301

현대의 그 어떤 책도 고전이 갖고 있는 간결하고 그윽한 맛을 뛰어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나온 책도 때론 고전의 역할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시대적 사고를 반영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뜻밖의 책도 있다.

장휘옥(章揮玉) 선생의 <불교학개론 강의실 J301>. 필자가 이 책을 접하게 된 것은 이 책이 출판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이다. 조금만 관심이라도 슬쩍적으로 책을 사야 하는 직업적인 버릇도 있었지만, 우선은 저자에 대한 평소의 관심 때문이었다. 이 책의 저자는 원래 불교와는 거리가 먼 부산대 화학과 출신이었다. 그후 동국대 불교학과 3학년에 편입하여 석사과정을 거쳐 일본으로 유학, 불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했을 때, 출판물을 하는 나로서는 저자의 학문세계에 대하여 적지 않은 관심을 가졌었다.

체계적으로 서술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이 책에 대하여 역설하는 까닭은, 이 책에서만 볼 수 있는 몇가지의 특성-최소한 현재까지는-때문이다. 첫째 이 책은 한자화 된 난해한 불교용어-때론 심오하고도 포괄적인 하지만-를 아주 쉽고도 분명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저 선생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최소한은 원래부터 불교와 무슨 특



윤창화 (민족사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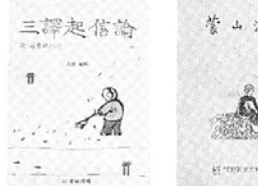
불교교리 쉽고 명쾌한 해석 강의노트 정리 ‘현장감 생생’

다. 이책이 출판된 것은 아마 저자가 귀국한지 3년쯤 되었을까. 그런데 사실이 책이 나왔을 때 불교학계에서는 대체로 달갑지 않은 시각이었다. “학자가 논문은 쓰지않고 출판물이라는 스타일의 개론서를 썼다”는 것과 그리고 그 별스러운 스타일이 ‘조금은 비위에 거슬리는 듯한 느낌이 부가되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필자는 추측한다. 필자 역시 이 핑계 저 핑계로 독파하기를 미루다가 지난해 봄 어느날 저녁 이 책을 읽었을 때, 뜻밖에도 저자의 해박하고도 명쾌한 해석에 새벽까지 이 책을 읽었던 일은 나로서는 참으로 희귀한 일의 하나였다.

별한 인연이 있어서 어느정도 생이지지(生而知之)한 것이 아닐까 하는, 즉 나와는 먼거리에 있다고 느껴왔던 불교를 누구나 연구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 가능성을 심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저자 자신도 원래는 불교와는 거리가 먼 화학과 출신이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불교는 원시 생소하고 난해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저자 자신에 대한 자기 이야기와 불교를 공부하게 된 동기를 사사이에 설명하여 지루한 감 없이 다음 장을 넘기면 또 어떤 말이 나올까 몹시 궁금해진다 것이다. 불교교리에 대한 명쾌한 해석과 그렇게 해석하는 저 선생은 누군가 하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결국 이책을 손에 놓지 않고 끝까지 읽게 만들고 있다.

새로 나온 책

▲三譯기신론(우진스님 편집)=진제스님과 실라난타(實叉難陀)스님이 번역한 <기신론(起信論)>과, 진제스님의 번역본을 하계다(Yoshito S. Hakeda)씨가 영역해 콜롬비아대 출판부에서 발행한 영역본을 함께 실었다. 승가대학(강원)에서 교재로 사용되는 목판본 <해동소(疏)>를 부록으로 담았다. <부다가야 1만5백원>
▲몽산법어(현담 편역)=중국 평강(平江) 휴휴암(休休庵)에 머물던 원말(元末)의 고승 몽산(蒙山)화상의 법어를 해석했다. 고려 보제존자 나용 해근



(懶翁慧動)의 <시각오선인(示觀悟禪人)법어>등 5권의 글을 부록으로 실었다. <수성출판사 5천원>

▲길 위에서 길을 묻다(심석구 저)=명찰에 남아있는 고승의 향취와 정감어린 이야기를 찾아가는 이색적인 답사기. 소설형식을 적절히 가미해 더욱 흥미를 더한다.



태일 5천5백원) ▲살아있는 인도의 영혼을 찾아서(박지명 저)=인도와 히말리아에 대한 정확한 안내서인 동시에 인도의 모든 것을 소개하고있는 실질적인 명상과 수행의 지침서. 인도의 여러 성지와 잘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성지들에 대한 얘기를 동서남북으로 나뉘었다. 수행자들의

초월적인 영감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가르침도 실었다. <깨침의 소리 8천원> ▲남전(라즈니쉬 저·손민규 역)=시립을 쓰고 소를 치며,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밭을 일구며 선종을 떨친 남전 보인(南泉普願: 748~834)의 법어를 쉽게 강의했다. <태일 5천5백원>



▲남전(라즈니쉬 저·손민규 역)=시립을 쓰고 소를 치며,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밭을 일구며 선종을 떨친 남전 보인(南泉普願: 748~834)의 법어를 쉽게 강의했다. <태일 5천5백원>

정신과 의사 이근후 박사의 남산석불 이야기 그 첫번째
10여년간 남산의 돌부처 찾기로 세월을 보낸
정신과 의사 이근후 박사의 남산 돌부처 순례기 !!
세월과 바람이 빛은 한국인

돌부처

남산의 한 골짜기에서 홀연히 맞닥뜨린 돌부처의 미소
‘천년의 세월은 지금 이 순간으로 우리 앞에 다가 온다’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친숙한 얼굴
돌부처.
때로는 근심어린 얼굴로
때로는 잔잔한 미소로
세상에 찌든 채
자신조차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알 수 없는 편안함으로 다가서는 돌부처.
돌연 마음 밀바다까지 투명해짐을 느낄 때
천년의 세월은
지금 이 순간으로 우리 앞에 다가 온다.

출판사 여시아문 전화: 737-8881

경주 남산 석불 사진전

경주남산 석불 이야기 ‘돌부처’의 모태가 된 남산 석불이 경주와 울산으로 갑니다.

지난 해 12월에 열렸던(서울 세종문화회관 제 3전시실) 「아, 그 미소, 구원의 미소여!」 경주 남산 석불 사진전에서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보여 주셨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이번에는 경주와 울산에서 각각 7일간 전시회를 엽니다. 와서 보시고 우리 문화의 숨결을 느끼십시오.

- 전시일정
- 경주
▶ *96 3월 22일 ~ 3월 28일 경주 현대 호텔 특별 전시실
- 울산
▶ *96 3월 29일 ~ 4월 4일 울산 한마음 회관

*현지 전시실에서 ‘돌부처’를 특별 판매합니다.